

11월15일 수능, 영어·한국사 절대평가

8월23일 원서접수... 신설 '양산' 등 86개 지구서 시험 EBS 연계율 70%... 필수 한국사 미응시시 수능 무효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한국사 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8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8월23일부터 9

월7일까지 12일간으로 성적표는 12월 5일 배부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19~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영어,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성적통지표에 표준점수·백분위 없이

등급(1~9등급)만 표기되고 표준점수는 적히지 않는다.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으로 9개 등급이 10점 간격으로 나뉜다. EBS 수능 연계율도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시험지구는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남

총 86개가 운영된다. 경남 양산에 시험지구가 신설됐다. 제주·서귀포 지구의 번호는 각각 04-06, 05-06으로 변경된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사프심(흑색 0.5mm) 등이다. 시계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전자 시계와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뉴시스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0% 동결

고용위기지역 상환 최대 3년 유예 장애인 C학점 이상 성적기준 폐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고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

교육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동결했다. 또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목포다.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지원 조건은 성적기준인 C학점(70점)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 학점 취득 목적의 초·하이자에서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로 확대된다. /뉴시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고객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은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6주)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금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300인 이상 기업 기간제·간접고용 비율 감소

전체 근로자 486만5000명 중 소속근로자 395만9000명으로 81.4% 용역·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90만6000명으로 18.6%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감소

올해 기간제 근로자와 간접고용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주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478개소, 이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486만

5000명이다. 전체 근로자 486만5000명 중 소속근로자(직접고용)는 395만9000명으로 81.4%를 차지했다. 용역·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는 90만6000명으로 18.6%를 차지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소속근로자 395만9000명 중 기간제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02만8000명(76.5%), 기간제 근로자는 93만1000명(23.5%)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고,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0.8%포인트 감소했다. 소속근로자(기간제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는 24만8000명(6.3%)으로 집계됐다.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24.9%,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15.3%로 나타났다. 500인 미만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15.1%,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3.9%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우수기업을 일치리 으뜸기업 선정 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교육부, 한·미대학생 연수참가자 125명 선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하반기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1년 이내)에게 최장 18개월간 미국에서 어학연수, 인턴, 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참가자 125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한민국 소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전문대 2학기 이상,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10월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국립국제교육원(www.nied.go.kr), 웨스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ggi.west)을 참고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장애인고용공단, 13일 3대 통계 설명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오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장애인고용조사 통계 데이터 설명회'를 연다.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통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3개 통계 데이터는 장애인 노동시장

현황과 실태, 기업체 장애인 고용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료로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9일 장애인고용조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아프리카 생명공학 및 수의학 분야 학부생들을 초청해 전공 강의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대, 아프리카 학생 초청 문화체험

국립국제교육원 아프리카 대학생 초청연수사업 선정
우간다 등 20명 5주간 수의학 공부·문화체험 활동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아프리카 생명공학 및 수의학 분야 학부생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에서 전공 강의 및 실습실습에 참여하고 전공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전문 지식을 배운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수업 및 한국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성석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은 개강식에서 "우리 대학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나라의 발전된 학문과 아름다운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창업지원단, 창업 팀 22개 최종 선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이 1학과 1기업 창업 팀 22개를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각 팀에게는 1차로 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30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된다. 또한, 창업동아리방(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규창업자는 평가를 거쳐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도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선발팀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1학과 1기업 창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지원

사업비의 올바른 사용 기준 안내 등이 이루어졌으며, 창업아이템사업화 2차 모집 설명회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 사업 설명도 이어지는 등 학생들이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접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백현기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정부 및 지자체, 대학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정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창업지원단에 대한 신뢰감과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창업 활동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익선=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